

양혜규 “과거·미래 시공간에 대한 고찰 표현”

October 15, 2019 | 이한선 기자

양혜규 “과거·미래 시공간에 대한 고찰 표현”

내달 17일까지 국제갤러리서 ‘서기 2000년이 오면’ 개인전

독일을 오가며 활동하는 양혜규 작가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국제갤러리는 양혜규 작가 개인전 ‘서기 2000년이 오면’을 지난달 3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과거와 미래 시공간에 대한 고찰을 표현한다. 전시에서 만난 양 작가는 “시공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한다. 집불, 조명, 연무 등이 한자리에 모여 보지 못했던 양상을 나타낸다”며 “소리 나는 운동에서는 일부 구를 픽셀처럼 방울들이 뒹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방울 개수가 늘어 동물가족 같다는 생각이 드는 등 재료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특이한 것은

비단 테이핑으로 장기관을 나타냈다. 이 매트릭스가 벽을 타고 올라가면 벽지와 조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벽지 작업은 ‘배양과 소진’이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린 개인전에서 공개된 작품이다. 이교도적인 문화 흔적과 4차 산업이 공존하는 프랑스 남부 옥시타니아 지역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으로 의료 수술 로봇, 무지



‘서기 2000년이 오면’ 설치전경. [사진=국제갤러리 제공]

개, 반개 등이 표현돼 있다. ‘소리 나는 운동’은 원형 몸체가 방울로 이뤄져 있는 작품이다.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에서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중계 영상에서 추출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등이 흘러 나온다. 양 작가는 “집불이 구슬 공 같기도 하고 앉을 수도 있다. 앉으려 하면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몸에 좋다”며 “월페이퍼는 2011년 처음 미국 아스펜에서 ‘축지법’이라는 제목으로 썼다. 영어번역이 쉽지 않아 땅을 점었다 됐다”고 설명했다. 점고 한걸음 이동해 풀면 긴 거리를 이동하게 되는 식”이라고 밝혔다. 양 작가는 “‘서기 2000년이 되면’이라는 전시 제목은 민혜경의 노래 ‘서기 2000년’에서 비롯됐다. 노래 안에는 시공간, 시점도 있다. 노래가 나온 1982년에는 2000년이 먼 미래였고 지금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기억”이라며 “노래에서 접혀진 시간을 봤고 절반이 후렴인 가운데 대책 없이 막연한 가사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한선 기자 griffin@